

## 외세의 조선진출과 인보관사업의 태동

-화광교원과 태화여자관을 중심으로-

梅花女子大學 教授 윤정수

###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의미의 인보관사업은 한 세기에 이를 정도로 그 뿌리가 깊다.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관이라 통칭되는 초기 인보관사업은 주로 외세에 의해 시작되어 외세의 목적에 의해 운영되다가, 일본의 강점기를 벗어나면서 자국민에 의한 자국민을 위한 인보관사업으로 그 맥이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인보관사업은 198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지역사회복지’, ‘재가복지’ 등이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사회복지사업’이 법정사업으로 규정된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국에 산재한 각종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아 2006년 6월 현재 전국에 693 개소가 설치되어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보관사업에 대한 정체성 논란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 심심치 않게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03년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의 주최로 열린 대회에서 황성철은 ‘사회복지관의 정체성과 전문성’이란 주제로 발표한 내용 중 “이러한 사회복지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이유는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황성철, 2003)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인보관의 정체성확립은 초기 인보관의 태동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전제로 한 인식의 정립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인보관사업이 태동할 무렵의 사료를 토대로 그 시대적 배경을 분석하여, 최초의 인보관사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실태를 적시하고 바로 잡을 것이며, 둘째로 향사회관과 태화여자관을 중심으로 그 설립목적과 배경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로 두 기관의 사업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외세에 의한 인보관사업의 특징과 한계성을 규명하려고 한다.

### 2. 인보관사업의 태동과 사회적 배경

조선왕조 후기의 집권세력은 외세의 개방압력에 대해서 쇄국정책으로 일관하였고, 민중의 개혁요구에 대해서는 물리적 탄압으로 그 요구를 봉쇄하였지만, 결국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의 열강으로부터 국권을 침해당하는 노골적인 도발을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일본과 서구열강의

조선선점을 위한 선봉적 역할에 불교 및 기독교의 포교활동이 이용 되었고, 두 종교에 의한 치열한 각축전은 대리전을 양상케 하였다.

조선에서 일본불교의 포교활동이 본격적으로 행해진 것은 1877 년에 眞宗大谷派本願寺의 승려 奧村圓心이 재조선일본인거류민의 생활보호 및 위안기관 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부산에 본원사의 별원을 세우고 부터이다(大谷派本願寺朝鮮開教監督部編, 1927:18). 당시, 조선開教師를 파견할 때의 배경을 “朝鮮開教五十年誌” 를 통해서 살펴볼 수 가 있다.

“우리 本願寺는 비록 政敎는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종교라고하는 것은 정치와 더불어 서로 도움으로써 국운의 進展發揚이 국민의 활동을 企圖해야 한다는 것을 信條로 하고 있다. 명치 정부가 유신의 대업을 완성하고 점차 支那, 朝鮮 등의 제 외국을 향해서 발전을 꾀하는데 있어서, 本願寺도 역시 北海道의 개척을 비롯하여 지나, 조선의 개교를 계획했던 것이다(大谷派本願寺朝鮮開教監督部編, 1927).” 라고 하였으며, 내무대신 大久保利通와 외무대신 寺島宗則이 본원사 관장인 嚴如上人에게 서신을 보내 조선개교의 일을 중용한 내용을 보면 “本願寺에 있어서 제일차개교에 공로가 있는 浮信의 후손인 奧村圓心 및 平野惠粹 兩師를 발탁하여 부산에 별원을 건설할 것을 명하였다” (大谷派本願寺朝鮮開教監督部編, 1927:18-19)고 적시하고 있어, 일본불교의 조선진출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일본제국정부의 대외정책과 같은 궤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가운데 서구에서는, 1876 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연합장로교 선교부 목사인 로스(J. Ross)가 의주출신 李應贊과 함께 한글성경 번역작업을 시작으로 포교활동의 발판을 만들게 된다 (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9:143-144).

그러나 임오군란(1882)과 갑신정변(1884) 등 연이은 내란으로 외세에 대한 경계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중국의 만주를 담당했던 로스나 미국성서공회에서 일본 동경에 파견된 루미스(H. Loomis) 등의 도움을 받아 기독교의 포교활동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어 조선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1884 년 6 월 24 일 미감리회 소속으로 일본에 파견된 매클레이(R. S. Maclay)가 조선의 포교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파견되었고, 이것이 감리교에 의한 인보관사업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때 매클레이는 한양(서울)에 도착하여 미국공사관의 푸트(L. H. Foote)를 만나 조선의 포교 가능성에 대하여 타진하던 중 푸트의 통역원으로 외교업무에 관여하던 尹致昊를 통하여 조정의 외부승지인 金玉均을 만나 조선에서의 기독교 포교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고종은 ‘미국인들이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허락’ 하였고(R. S. Maclay, 1896:289-290), 이 소식이 매클레이에 의해 본국에 알려지면서 미국 북장로교와 미감리교를 필두로 하는 미국의 조선 포교활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당시의 폐쇄적 상황속에서 직접적 포교활동이나 종교집회는 엄격히 제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조선내 활동도 교육과 의료사업에 국한된 실정이었다. 따라서 미국 북장로교는 교육사업에 언더우드(H. G. Underwood)를, 의료사업에 알렌(H. N. Allen)을 미국공사관 공인 의사 자격으로 1884년 11월에 파견하게 되면서 개신교의 본격적인 포교활동이 시작되었다(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9:185). 이러한 기독교의 조선진출에서도 알수 있듯이 미감리교나 북장로교 또한 미국정부의 비호속에 조선포교를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인 일본정부와 일본불교는 이러한 서구세력과 기독교의 조선진출을 경계하였을 뿐 만 아니라, 다음의 문장에서는 긴장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奥村圓心이 1898년 10월에 京都本山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의 법은 가족의 털과 같고, 日과 韓은 脣과 齒같아 양측이 서로 준비하여 完全具備한다. 깊이 잘 생각하면 東邦의 形勢가 매달 점점 악화되고, 지금 조선의 狀態를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 이 가을에 我王法爲本忠君愛國의 敎로써 조선국민을 유도개발하는 것은 실로 我敎의 本至로서, 나라에 보답하고 법을 지키는 所以, 지금 일본의 文物風敎가 오늘의 盛況을 가져온 것은 지난날 조선의 유도개발에 의한 것이다. 이로써 조선포교의 議가 일어난다(大谷派本願寺朝鮮開敎監督部編, 1927:15).” 라며, 조선의 개발에는 일본 밖에 없다는 논리를 주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개교에 대한 견해는, 일개종파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불교의 다른 종파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日蓮宗의 加藤文教는 “오늘날 조선의 불교는 퇴조하고, 그리스도교의 침입은 매일 번성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0년후에는 조선의 종교가 그리스도교화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이다. 이것은, 조선의 독립과 安危, 그리고 消長을 협박하는 것(加藤文教, 1900:20-21)” 이라고 하며, 기독교를 앞세운 서구열강의 조선진출에 대한 방편으로 일본 불교의 적극적인 조선진출을 역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日·韓·淸三國은 純然한 독립국가로서 東洋平和를 유지하고, 安危存亡 그 운명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불교조선을 위해 포교를 하는 것은 일본불교도의 報恩的인 義務(加藤文教, 1900:23)” 라고 하며, 일본불교의 조선진출은 ‘脣齒의 관계’로부터 ‘동양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까지 비약하여, 서구의 조선진출을 견제하며 일본의 침략행위에 편승 또는 동조하면서 조선진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유를 배경으로 조선은 일본불교와 서구 기독교에 의한 포교활동의 각축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 3. 화광교원과 태화여자관의 설립

## 1) 화광교원의 설립

식민본국과 종교단체는 대단히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중에 하나는, 선교사 등의 침투와 활동이 나중에 식민지개척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내고, 또 하나는 식민지 지배에 있어서의 ‘정신적계몽’에 관한 것은 주로 종교활동의 일부로서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P. S. Reinsch, 1924). 이러한 관계는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외부세력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본불교의 진중 본원사로부터 조선포교를 명받고 온 奥村圓心은 포교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教旨를 설법하는 것보다, 우선 좌담으로, 물질적으로, 교류로, 후하게 대접하여 성의를 피력하는 것으로 호의를 얻게 하여, 후에는 설법 또는 教旨를 조선어로 번역하여 참배자에게 배포하는 등의 ‘先親後攝’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大谷派本願寺朝鮮開教監督部編, 1927:32). 1889년 奥村圓心이 京都本山에 제출한 상신서에 의하면, “僧俗을 불문하고, 지방저명의 인물을 장려하여 일본을 보게함으로써 일반의 개발보급을 꾀할 것. 來遊(일본여행:필자주)는 한해에 반드시 두명을 오게하고 조선에서 포교에 진력하는 자는 僧俗을 불문하고 특별취급을 하도록 상선회사에 총무가 직접 당부할 것.” 과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청년을 계발할 것. 처음에는 조선인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한인교사 한명을 고용하고 생도는 전부 無月謝로하고, 또한 상용필지나 목을 급여하고, 처음에는 오로지 재래의 학예를 습득시켜 자연필산, 지리, 역사 등에 이르게하여 마지막에는 종교적 윤리를 교육할 것, 그리고 또한 생도는 10 명으로 한정하고 관찰사지방관 등에게 교섭을 이루어 중 이상의 생활을 함과 동시에 준수한 자를 발탁할 것(大谷派本願寺朝鮮開教監督部編, 1927:72)” 이라고 하여 포교방법에 대해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지방관료를 동원하여 우수한 청년들을 선발하며 민중포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그들의 목적이었으며,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교윤리’는 최종적으로 ‘王治爲本忠君愛國’으로 귀결되는 왜곡된 教義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황민화=일본적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조선인 인재 양성이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토종은 1893년 野上運海가 漢城府에 종무소를 설치하고 포교활동을 시작해, 일제강점이 시작된 1910년 당시에는 21개소의 사찰 및 출장소와 조선인 포교를 위해 4개소에 출장포교소를 설치하였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1:879). 그리고 1913년 2월 京城府 觀水洞 102번지의 260평의 토지와 가옥을 구입하여 정토종 개교원 ‘一念舍’를 개설하고, ‘정토종교우회’의 조직외에 ‘청년야학회’와 ‘일요 어린이회’ 등을 조직하여 교육과 교화사업을 병행·개시하여 화광교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20년 4월에 조선총독부로부터 종로 3정목 27번지의 조선총독부소관 부지 98평과 건물을 무료로 대여하여 ‘和光教園’이라고 개칭하고, 그해 6월에 조선사정에 밝은 久家慈光이

조선개교구장 겸 개교원 주직으로 부임함과 동시에, 개교원의 부지내에 경식양잠업 및 농산업 실업가인 福永政治郎의 기부금으로 70 평인 2 층건물과 부속건물을 증축하여 동년 12 월부터 노동자를 위한 숙박소사업을 시작(朝鮮社會事業研究會, 1926:32; 和光教園出版部, 1927:2-3)했던 것이 우리나라 인보관사업의 효시가 된다.

화광교원은 조선총독부소관 부지를 무료로 대여 받은 것을 시작으로, 1924 년에는 전 조선군사령부청사인 관수동 101-2, 114, 116-8 번지 56 평을 조선총독부로부터 양도받은 것 외에, 1926 년 11 월에는 조선총독부의 관수동 120 번지 337 평을 무료대여 받고, 더구나 조선총독부 구청사의 일부인 2 층 건물 89 평도 양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당시의 일급지에 해당하는 요지임과 동시에 화광교원 전소유지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면적으로, 식민지당국의 화광교원활동에의 기대감과 관심도가 반영되어 있는 이례적인 조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우기 화광교원은 일본황실로부터도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2 년 ‘紀元節’에는 “창립일 또한 얼마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破格의 異例로써 宮內省으로부터 金 500 圓의 獎勵金이 내려졌다(和光教園出版部, 1927:8).” 화광교원은 이 영예로운 일을 기념하기 위해 인보관사업활동의 근거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건평 35 평의 小公會堂을 건축하고, 조선총독 齊藤實로부터 ‘恩賜記念館’의 이름을 받았다고 기록·선전하고 있다(和光教園出版部, 1927:8).

화광교원의 설립에는 이러한 정치적 배경 뿐 만 아니라, 불교사상이 함께 어울어져 있는 것을 엿 볼수 있는데, 그것은 정토종이 화광교원을 설립할 때 화광교원의 ‘使命’으로서, “和光教園은 佛敎의 根本精神에 準하여 社會를 淨化하고 個人을 完成하는 ‘淨佛國土成就衆生’의 大業에 微哀를 다하길 원하는 것이다. (중략)佛敎를 받드는 우리는 이 國土를 佛陀相應의 國土로서 佛土의 穢濁을 淨化하려고 同信協力하고, 成就衆生의 大道를 걷지 않으면 안된다. 微少하지만 화광교원은 이 사명을 받드는 하나의 道場이고 싶다고 念願한다(和光教園出版部, 1927:3-4).” 라고 하여 화광교원의 설립이 불교 본연의 목적에 기인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화광교원주사 荻野順導는 ‘物神兩方面의 구제를 목적으로’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근처의 어린이 등이 모여 와서 아침부터 밤까지 놀고 있다. 누구를 봐도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학교를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필요없느냐, 모두가 해달라고 희망한다(荻野順導, 1929:33).” 라며, 화광교원 학원부의 개설동기를 밝히고 있으며, 「화광교원은 무엇을 위해서 경영하는가」라는 제목으로 “隣保事業은 萬有의 이면에 감추어진 부처의 마음이 만인의 가슴을 두드려서 同音同響을 느끼는 곳에 생긴다. 人類相愛의 本性에 따라서, 행복이 많은 사람이 행복이 적은 이웃, 풍족하지 않은 이웃에 대해서 感恩相資의 등불을 들어

온화하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 주는 곳에 있다. 개인보다는 가정에 이웃마을에 상호동지가 같이 靈光에 접할 수 있는 것이 그 기초를 이룬다(荻野順導, 1926:37).” 고 하여, 화광교원의 사회사업활동은 자비사상을 기초로 하는 인보사업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최초의 인보관인 화광교원의 설립목적은 불교의 자비사상에 의거한 중생구제의 관점에서 시행된 인보관사업을 통하여 조선민중을 황민화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화광교원은 초기의 설립취지와는 다른 불교본연의 자비에 의한 인보관사업이라기 보다는, ‘정교유착’의 산물로 지배질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일본제국주의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 2) 태화여자관의 설립

태화여자관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감리교는 남북전쟁(1861-1865) 이후 미감리교(Methodist Episcopal Church)와 남감리교(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로 분열되었으며, 분열된상태로 각각의 루트를 가지고 조선선교에 임하게 된다. 이렇게 조선에 진출한 감리교와 태화여자관의 설립에 기여한 또 하나의 선교단체인 북장로교의 각 선교부는 선교사업의 효율화를 이유로 선교지역 분할협정을 맺게 된다(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9:213-218). 이를 근거로 서울에서는 미국의 선교단체인 미감리회, 남감리회, 북장로회가 함께 선교사업을 전개하였다.

1919년 3월 1일 조선의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이 때, 체포된 조선인의 25.2%가 기독교인 이었다(友邦協會, 1964:100-103)는 사실 때문에 이후 기독교단체의 집회는 특별히 경찰의 감시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를 구실로 식민지 당국은 기독교단체 뿐 아니라 모든 집회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감리회의 마이어즈(M. D. Myers), 미감리회의 마커(J. B. Marker), 북장로회의 왓볼드(K. Wambold)는 자신이 속한 본국의 선교부에 독립건물을 건립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 감리교에서는 대대적인 해외선교기금 모금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때 미국의 남감리회 선교백년기념사업회가 모금한 선교백년기금의 일부가 태화여자관의 설립자금으로 보내져 왔던 것이다.

이렇게 남감리교 선교백년기념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선교사와 조선인으로 구성된 ‘선교백년기념회’가 조선에서도 조직되었고, 이때 10 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게 되는데 그 중 세부사항으로 “예수교의 原理를 가지고 社會의 風俗을 調私할 것”과 “幼稚園과 書籍縱覽所와 夜學校와 運動場과 母親會 등을 設立하여 社會改良에 利用할 것”(梁柱三, 1930:134)등을 적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훗날 태화여자관의 설립이념인 ‘복음전도’, ‘여성교육’, ‘사회사업’으로 이어지며 발전하게 된다.

설립기금을 확보한 남감리회 여선교부는 독립된 부지와 건물을 적극적으로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마땅한 매물로 나온 것이 유명한 기생요리집이었던 明月館의 분점인 ‘泰和館’이었다. 당시 태화관의 원 주인은 이완용이었는데 임대인 안순환과는 상의 없이 태화관의 매각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는 민족대표들이 1919년 3월 1일 이곳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일 때문에 조선인에게는 성스러운 장소로 소문이 퍼져나가는 상황이었고, 일본을 의식한 이완용으로서도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에 매우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태화관의 매입절차가 진행되는 데는 1920년 9월 15일부터 서울종교교회에서 열린 제 3회 조선연회에 참석한 남감리교 감독인 램버드(W. R. Lambuth)와 마이어즈는 연회가 끝난 다음날인 1920년 9월 20일 경성부 인사동 194번지에 위치한 태화관 2천 7백여평을 20 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년 12월 11일에 잔금을 체결함으로써 명월관 지점(태화관)의 매매가 성립되었다(基督申報, 1919. 12. 29).

이렇게 매입한 ‘태화관’은 ‘태화여자관’으로 바뀌어 3개월여의 새단장을 마치고 1921년 4월 1일, 2일 양일간 일반인에게 공개 되었다. 그리고 동년 4월 4일 태화여자관은 공식적으로 개관하여 조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개관한 ‘태화여자관’은 조선민중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태화사회관’, ‘태화여자사회관’ 등으로 불리우나, 선교사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영어 명칭에서는 ‘태화(Taiwha)’라는 명칭이 보이지 않고 ‘Seoul Social Evangelistic Center’였다. 이를 직역하면 ‘서울사회복음센터’여서 당시 조선에서 활동한 선교사들과 조선인 사이엔 인식의 차이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심지어 태화여자관 건립을 선두에서 지휘한 마이어즈도 당시 자신의 기록에 ‘The Social Evangelistic Center for Women’으로 표기하여 ‘여자사회복음센터’로 인식하고 있었다(M. D. Myers, 1921-22).

또한 선교사들의 보편적 명칭보다 ‘태화여자관’이 일반적으로 쓰여진 배경에는 사업내용의 초점이 조선의 여성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역사』를 저술한 이덕주의 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태화여자관은 서울지역의 교회 여성들이 초교파적으로 연합(협성)여자성경학원의 교사를 마련한다는 구체적인 동기가 결실을 맺은 것이었기 때문에 ‘복음전도’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또한 그곳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교육과정들은 봉건주의 사회체제의 틀을 아직도 깨뜨리지 못하고 있던 한국 여성들의 자각과 자기 능력개발을 위한 것들로서, 태화여자관은 ‘여성교육’의 산실이 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이 자기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속으로 들어가 변화의 주역들이 되었으니, 태화여자관 설립의 궁극적 목표였던 ‘사회선교’가 이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이덕주, 1993:125).”

#### 4. 화광교원과 태화여자관의 인보관사업

##### 1) 화광교원과 인보관사업

정토중 조선개교구장 久家慈光을 필두로 화광교원주사 荻野順導등 화광교원설립 관계자들은, 1920 년 10 월 조선총독부를 비롯해서 각 관청의 사회과를 방문하고, 당국의 원조아래 조선하층민의 실정조사를 행하여, 사업개요의 계획을 추진하는데 이르렀다. 동년 11 월에는 관수동본부에 교사 및 숙사를 갖추고, 동년 12 월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무료로 대여받은 종로부지내에 숙박소의 설비를 구비, 학원부, 숙박부, 교화부를 개설하였다<sup>1)</sup>. 1921 년도에는 의료부, 1922 년도에는 직업소개부, 인사상담부, 식사부, 이발부, 염매부, 1923 년도에는 구호부, 1924 년도에는 옥장부, 수산부, 1926 년도에는 세탁부 등을 계속하여 개설하였다<sup>2)</sup>. 화광교원측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부의 사업을 시설경영하기로 하고, 단 적합한 시기에 종류를 증감하기로 하면서, 이 외에 유원부, 도서부, 구락부, 보육부, 강연부, 출판부, 조사부 등을 설치하였다(제 1 장, 제 2 조)<sup>3)</sup>.

이러한 화광교원의 인보사업은 변화하여, 1935 년에는 다음과 같이 확장개편 되기에 이르렀다.

<표 1> 1935 년에 있어서 화광교원사업성적 (단위: 명)

부명	종목	보호인원	적요
①학원부	화광보통학교	남	552(658)
		여	378(444)
	화광야간부	남	14(14)
	여	25(25)	
	동대문서당	남	187(233)
		여	71(106)
②보육부	화광유치원	남	31(36)
		여	31(41)
	자광유치원	남	34(47)
		여	24(35)
③교화부	화광교회	본원	1,500(1,500)
		동대문	980(980)
	화광일요학교	본원	1,106(5,797)
		동대문	339(4,666)
화광청년단	남	17(204)	
화광여자청년	여	60(365)	
④숙박부	노동숙박소	남	4,048(27,144)
	여자숙박소	여	3,898(11,631)

				편의를 제공(일박 5 전)
⑤소개부	일반소개	남 여	1, 441 (1, 441) 4, 921 (4, 921)	무직 및 실업자의 보호에 임해서 무료직업소개를 행함
	일용소개	남 여	3, 591 (3, 591) 518 (518)	上同, 일용취직인원
⑥상담부	인사상담소	남 여	401 (463) 182 (197)	인사 일반의 상담에 응한 생활상의 상담이 많음
⑦구호부	일시구호소	남 여	3, 805 (4, 947) 521 (640)	일시궁박사정자에게 일식일박의 구호를 행함
⑧식사부	간이식당	남 여	8, 132 (12, 315) 2, 366 (7, 110)	일식 7 전, 실비급식, 숙박 남여는 이것을 이용
⑨이발부	간이이발소	노동자 학생	1, 036 (12, 431) 1, 034 (12, 413)	위생보급의 취지에서 어린이 5 전, 어른 10 전으로 함
⑩욕장부	목욕실	남 여	372 (1, 870) 325 (1, 250)	위와 같은 취지에서 무료입욕으로 함. 숙박인에게 입욕시킴.
⑪수산부	편물과	남 여	35 (418) 21 (222)	털실편물, 양말제작의 기술전수를 행함.
	세탁과	남	10 (116)	
⑫염매부	염매소	남 여	658 (658) 444 (444)	문구의 원가급품을 행함. 학원아동이 이것을 이용.
계	21 종목		43, 108 (119, 893)	

자료 : 荻原順道『和光教園事業要覽』和光教園, 1936년, pp. 10-12.

주 : ( ) 안의 숫자는 연인원을 나타냄.

화광교원의 사업은 창립 15년이 되어, 전 12부 21종목의 종합적 사회사업으로 확장해 왔지만, 그 성격을 기초로 해서, 대체로 교화사업과 방빈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를 학원부의 개설 및 사업내용을 통해서 보면, 무교육은 곧 궁핍의 한 원인이고, 또 불량소년소녀의 種字이고, 범죄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빈곤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궁지에 있는 근린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하루빨리 개설했다(和光教園出版部, 1927:6)고 개설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게다가, 화광교원의 사명에 대해서 “和光教園은 德充의 一家族主義의 國是를 받들고 新同胞(팔자주:조선인)의 敎化道場인 一片의 意氣와 자신과에 서는 것(和光教園出版部, 1927:6)”이라고 하고 있는 것과, 화광교원규칙제 1장에는, “본원은 불교의 實義에 의거하여 隣保敎化의 機關으로서 諸種의 社會改良事業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제 1 조)(和光教園出版部, 1927:5)”와 같이 近隣, 新同胞등의 조선인을 지목하여, 인보사업과 사회개량사업을 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업방침으로서도 학칙제 4장의 입학자격조항에 있어서, 연령 6년 이상의 자로하고, 가계빈곤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수 없는자(제 12조)라고 하면서, 제 8장의 학비조항에 있어서는, 수업료 1개월 금 80전을 매월 10일까지 납부(제 22조)하는 것으로 하고, 질병 또는 정당의 사유에 의한 결석전월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가계곤란으로 그 필요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특별히 수업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제 22 조)고 하고 있다(荻野順道, 1936:97-98).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납부시키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1929 년 당시, 화광교원주사였던 荻野順道는, 처음에는 일생 글을 모르고 끝나 버릴 것 같은 자에게, 문자를 가르친다고 하는 기분이었으나 점점 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10 전, 20 전, 30 전으로 점점 올려갔는데, 가정의 사정에 의해서 月謝를 면제받고 있는 자가 2%정도 있다(荻野順道, 1929:33)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시의 조선빈민가정의 실정을, ‘物神兩方面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기고문에서, “父兄의 경제상태는 우리가 본 것으로는 월수 20 원 내지 30 원이 많은 것 같다. …… 이것만의 수입으로 5 명, 6 명의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본소의 수산부에서 일하고 있는 부부로 1 일 50 전의 수입으로 어린이 3 명을 양육하고 있으니, 1 일 1 명당 평균 10 전인데,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들에게는 상상이 되지 않는 곳이 있다(荻野順道, 1929:33).” 라고 조선민중의 궁핍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학비 80 전은 녹록치 않은 금액 임에 틀림이 없다.

결국,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본다면 화광교원사업이 조선인의 빈민구호를 그 목적으로 하면서, 佛法에 의한 자선과는 달리 본래의 취지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입증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빈민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교화 및 교육사업대상을 일반 조선민중을 중심으로 방침을 개정·실시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2) 태화여자관과 인보관사업

당시 조선사회에선 여자만을 위한 태화여자관의 설립에 사회적 관심이 대단했는데, 다음의 신문 기사를 통해 태화여자관에 대한 설립목적과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태화여자관 설립을 선두에서 지휘하고 있던 마이어즈는 “지금 조선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물론 가정을 개조하는데 있고 가정을 개조하자면 먼저 여자를 교육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일 첫째 목적은 일반 조선사람의 가정을 종교적 가정을 만들어 청결하고 신성하게 할 것이요, 둘째는 조선사람의 가정을 개조하는 것이외다. 이외에 조선여자로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잇든지 무슨 원통한 일이 잇든지 이 태화여자관을 어머니가치 알고 와서 상의할 것 가트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힘자라는 대로 주선하여 줄 터이요, 조선사람은 지금 나날이 진보하여 나가는 중이외다. 조선인도 남자가 양복을 입게 되었는데 가정의 주부되는 이가 이것을 전혀 몰나서는 안 되겠슴으로 양복 짓는 법, 요리 만드는 법, 영어, 산술, 한문, 기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르쳐 줄 터이외다(東亞日報, 1921. 3. 25).” 라고 답한다. 여기에서도 알수 있듯이

마이어드는 당연히 ‘조선가정의 기독교화’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유교사회의 불평등 속에 속박받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조선가정의 개조’를 주창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개조의 관건은 조선 여성들의 교육에 있다고 본 것이다.

태화여자관의 개관을 십여일 앞둔 마이어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東亞日報, 1921. 3. 25).

- 1) 종교부: ①성경공부-청년 또는 장년 여성을 상대로 주 1회(영어와 조선어 사용)  
②연합사경반-봄, 가을에 실시  
③창가반  
④음악연구반  
⑤여자성경학원-성경, 한문, 영어, 산술, 일어교육
- 2) 의약부: ①진찰소-매일 여성진료  
②어머니구락부-아동 육아법 강의  
③위생연구반-간호원 방문간호·가정위생 연구
- 3) 영아부: ①탁아소-어머니가 와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어린이를 돌 봄
- 4) 사회부: ①유치원-취학전 아동 교육  
②요리반-일반부인에게 요리법 강의  
③재봉반-양복 짓는 법  
④사교구락부-유희와 체육
- 5) 교육부: ①문학구락부-여러가지 보통 상식
- 6) 도서부: ①종람실-도서들을 구비하여 열람하게 함
- 7) 아동부: ①유희장-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

그렇지만, 처음부터 7 부서 16 종목의 모든 활동이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먼저 초년도에 실행된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여자성경학원’에는 100 여명의 생도가 모여, 3 개월 과정으로 성경, 영어, 일어, 한문, 산술을 공부하였고, 둘째, 동년 5 월에는 같은 내용으로 ‘야학부’를 개설하였다. 셋째,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규과정의 ‘태화여학교’를 개설하였다. 넷째, 여자성경학원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서양재봉과’를 개설하였는데, 28 명이 참가하여 주 1 회씩 아동복과 남자셔츠 만드는 법을 배웠다(M. D. Myers, 1922; 東亞日報, 1921. 5. 18)고 한다. 결국 초기 태화여자관의 사업은 공표된 내용의 극히 일부가 시행되었으며 ‘야학부’나 ‘태화여학교’ 등은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해 즉흥적으로 계획·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내용면에선 조선인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선교교육과 여성교육이 대부분 이었고, 인보관사업의 핵심인 사회사업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이후 계획된 사업내용에서는 증상류층에 그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양복을 입고 출근하며, 요리를 식탁에 올릴 수 있는 가정은 그리

흔치 않았을 것이며, 건강을 위해 사교구락부에서 유희와 체육을 즐길 수 있다는 일은, 당시 조선의 일반서민으로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태화여자관이 개관한 해의 9 월에 드러진 봉헌예배에 대한 마이어즈의 말을 빌리면, “예배가 끝난 직후 상당수 고위층 양반들이 와서는 가입 신청서를 내면서 말하기를 자신들은 오늘 예배와 교육과정, 그리고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자기 부인과 자녀들이 이 기관의 혜택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M. D. Myers, 1922).” 라고해, 태화여자관을 이용자층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개관 3 년 후인 1924 년 4 월 1 일자 신문에 유치원에 관한 기사를 보면, “태화유치원은 특히 설비를 충실히 하여 모범적으로 하겠슴으로 인원은 35 명만 수용하고 입학청원서는 사월이일까지 바들터인데 입학금은 오원이고 월사금은 이원이라더라(東亞日報, 1924. 4. 1).” 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당시 태화여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학생 가운데 몇명은 재봉부에서 일을 해 매월 4-5 원을 벌여 식비로 충당하였다(B. Bair, 1925:56)고 하는 베어(B. Bair)의 증언내용을 보더라도 유치원생이 지불하는 입학금과 월사금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짐작할 수 있으며, 윗글에서도 화광보통학교 학생의 월사금이 1927 년 당시 10 전 이었던 것에 견주어 보더라도 태화여자관 유치원의 입학대상자가 일반 조선민중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초기 태화여자관은 조선민중의 빈곤이나 문맹퇴치 보다는 조선사회에 영향력을 가진 중상류층의 포교활동에 주력하였고, 결과적으로 조선민중을 위한 사회사업은 뒷전으로 밀리는 편중된 형태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 5. 나가는 말

우리나라 최초 인보관사업은 일본제국주의하에서 일본불교 정토종에 의해 개설·운영된 화광교원이지만, 이를 대다수의 연구자나 교육자가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현대 사회복지관의 정체성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시말하면 향사회관과 태화여자관 모두가 인보관사업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과 건물을 확보하였고, 인보사업을 위한 설립목적과 이념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사업내용 면에서도 전문성과 이용자, 그리고 실행시기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인보관사업을 전개할 최소한의 조건은 갖추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복지 관련 역사저술에는 태화여자관이 최초의 인보관이라고 기록 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료는 대개 2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현실외면유형이다. 이덕주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역사”에서 “한국 역사상 어느때, 어느곳에서도 이만한 종합사회사업장이 마련된 적이 없었다(이덕주, 1993:131).” 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태화는 한국에서는 처음

설립된 여성사회관으로 새로운 일들을 개척해 나갔다(이덕주, 1993:139).” 라고 해, ‘여성사회관’으로써 최초임을 강조하는 여운을 남겼다. 또한 안상훈 외는 “서울대학교 한국학 연구총서 13; 한국 근대의 사회복지”에서 “특히 태화여자관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관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현대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전신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기관 중 하나이다 (안상훈외, 2005:116).” 라며, ‘현존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책 119 쪽의 “표 4-28. 일본인의 민간복지시설”에서는 “명칭: 화광교원, 설립년: 1920 년, 사업종류: 인보사업(인보관), 설립자 혹은 관리자: 荻野順導, 특성: 불교” 라고 스스로가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최초의 인보관에 대한 확인을 회피하는 자기모순을 감수하고 있다.

둘째는 현실거부유형이다. 황성철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의 주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 ‘사회복지관의 정체성과 전문성’에서 “미국의 감리교 선교부에서는 1921 년에 현재 태화기독교복지관의 전신인 ‘태화여자관’을 서울에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최초의 복지관으로 간주 된다(황성철, 2003).” 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국립사회복지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수영은 “1921 년 세워진 국내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을 찾아서” 라는 글에서 “우리나라에서 隣保館의 형태로 가장 먼저 설립되었고,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사회복지관인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김수영, 1996:41).” 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에서의 인보관(사회복지관)운동은 미국 남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부에서 파견된 馬如秀(M. D. Myers)선교사에 의해 1921년 설립 된 현재의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전신인 태화여자관을 그 효시로 볼 수 있다(김수영, 1996:42).” 고 확인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들 연구자의 사회적 위상을 생각해 볼 때 그 영향력은 지대한 것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교육현장에서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외에 우리나라에서 인보관사업이 태동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화광교원과 태화여자관을 비교해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게 되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인보관사업의 태동은 외세의 주도적 움직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화광교원이나 태화여자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주체세력은 일본 불교의 정토종과 미국의 남감리교로 대표 된다. 따라서 재정과 조직면에서 열악했던 조선민중은 화광교원이나 태화여자관의 설립에 보조적 형식을 취하며 동참하게 되는 의타적 태동기를 맞게 된다.

둘째, 태동기 인보관사업의 목적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보다, 종교적 목적이 절대 우위에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이나 서양열강이 조선에서의 세확산에 직·간접으로 일정분의 역할을 감당한 ‘정교유착적’ 배경이 작용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초기인보관의 사업대상은 화광교원의 경우 저소득 빈곤층인 반면, 태화여자관은 여성을 전제로한 중상류층이었다는 점이다. 화광교원은 주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포교와, 저소득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문맹퇴치를 병행하였고, 태화여자관은 중상류층의 부인과 자녀를 주 대상으로 하는 선교와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현대적 의미의 인보관사업은 일본불교 정토종에 의해 설립운영된 화광교원이 그 효시라고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랜세월 동안 왜곡된 기술과 인식이 반론 없이 통용되었는가, 그 연유에 대해서는 과제로 남긴다. 단지 “정체성이란 개인 또는 조직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성찰하고 조망한 후 자신의 역할을 정립하고 그 고유의 특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황성철, 2003).” 는 말 처럼 자신의 과거가 불성사납다고 해서 자신이 아닐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를 반면거울 삼아 자랑스러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정체성 확립의 첫 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 <주>

1) 1927 년의 『和光教園事業要覽』 에는, 1921 년 1 월에 學園部, 宿泊部, 敎化部를 개설했다고 하고 있으나, 1936 년의 『和光教園事業要覽』 에는, 창립년도, 즉, 1920 년에 三部를 개설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2) 여기에서의 年度는, 當年 4 월부터 翌年 3 월까지를 나타내고 있다.

3) 1927 년 4 월 당시의 각부서는,

·京城府觀水洞 102, 120 번지 : 學園部, 敎化部, 保育部, 廉賣部, 理髮部, 調查部, 授産部,

·京城府鍾路 3 丁目 27 번지 : 宿泊部, 浴場部, 紹介部, 相談部, 救護部.

同上, p. 15 를 참조.

#### <참고문헌>

황성철(2003), 「사회복지관의 정체성과 전문성」, 『사회복지관운영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한국기독교사연구회(1989),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김수영(1996),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을 찾아서; 1921 년 세워진 국내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峨山』.

윤정옥(1995), 「일본불교의 조선진출과 和光教園」 『국제고려학』 제 2 호, 국제고려학회.

안상희 외(2005), 「한국 근대의 사회복지」 서울대학교출판부.

이덕주(1993),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역사(1921)~(1993)」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 강남대학교 부설 한국사회복지연구소(2003), 「기독교사회복지의 사상과 실천모델」
- 姜裕文(1932), 「最近百年間朝鮮佛教概觀」, 『佛教』 제 100 호.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1981), 『서울六百年史』 제 4 권.
- 鄭光鎬(1989), 「近代韓日佛教關係史研究」慶熙大學大學院博士論文.  
「東亞日報」, 1924. 4. 1  
「東亞日報」, 1921. 5. 18  
「東亞日報」, 1921. 2. 27  
「東亞日報」, 1921. 3. 25  
「基督申報」, 1919. 12. 29
- 友邦協會(1964), 「騷擾事件起訴被告人の信教別表」, 『万世騷擾事件: 三・一運動(1)』
- 梁柱三(1930), 「朝鮮南監理教會三十年記念報」, 朝鮮南監理教會傳道局, p. 134
- 大谷派本願寺朝鮮開教監督部編(1927), 『朝鮮開教五十年誌』.
- 加藤文教(1900), 『朝鮮開教論』.
- 朝鮮社會事業研究會(1926), 『朝鮮社會事業』 제 4 권 2 호.
- 和光教園出版部(1927), 『和光教園社會事業要覽』 1927 년.
- 荻原順道(1929), 「物神兩方面の救済を目的として」『朝鮮社會事業』 朝鮮社會事業協會, 제 7 권 6 호.
- 荻原順道「和光教園は何の為に經營するか」『朝鮮社會事業』, 朝鮮社會事業研究會 제 4 권 9 호.
- P. S. Reinsch(1924), Colonial Governmen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olonial Institution, (姜志元譯 『近大植民政治論』 1949 년, pp. 36-50.)
- R. S. Maclay(1896), 'Korea' s Permit to Christianity'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 M. D. Myers(1921-22), "The Social Evangelistic Center for Women" WMC, p. 315
- M. D. Myers(1922), "Seoul Social Evangelistic Center for Women" KMF, p. 33
- B. Bair(1925), "Seoul Social Evangelitic Center" ,KWC, p. 56